

사진 : 김세호 에우세비오(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 청소년 주일

**제1독서** 신명기 4,32~34.39~40

**화답송** 시편 33(32),4~5.6과 9,18~19.20과 22 (© 12L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후렴) 행 복 하 여 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 - 성!

1.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2.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3.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4.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로마서 8,14~17

**복음환호송** 묵시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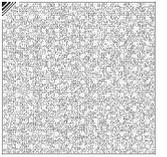
◎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마태오 28,16~20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인간 이성이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삼위일체의 신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다’는 단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나마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해 봅니다. 성부 하느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성령 하느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현존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알아듣도록 해주셨다고...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고 계시다는 교리인데, 이는 구원에 대한 근본 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증명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다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논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신비를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단어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교의 진리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계기로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신앙을 정리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하느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당신의 신비를 알려주고 있는 날, 인간이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라고 묵상해봅니다.

이 묵상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해봅니다.

하느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성자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교회가 가르쳐왔습니다. 그 내용을 믿는 우리는 결국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움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니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만큼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한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

도 정 호  
바로로 신부  
성바오로성당 주임



장자가 말합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도 소용없는 것은, 그 개구리가 살고 있는 좁은 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요, 여름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도 별 수 없는 것은 그 벌레가 살고 있는 철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이요.’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5.28(월)~29(화)  
도정호 신부(성바오로성당 주임)  
5.30(수)~6.2(토)  
성경오 신부(거제동성당 보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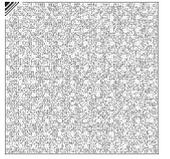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5.30(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오순절평화의마음 <성모의 밤>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5.30(수) 본당 리포터  
출연 : 김철현 라파엘(광안성당)

---

**신부들의 수다**  
6.2(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그 신부들의 선포표  
출연 : 유명일 신부(울만성당 주임)



## 네 이름은 마야



### 성모마리아

소년 레지오를 할 때부터 성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성모님을 통한 묵주기도를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엔 신기하기도 해서 묵주 한 알 한 알이 소중한 보물처럼 큰소리로 기도문을 따라 읊어갔다. 눈을 감고 있으면 성모님의 웃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렇게 시작된 묵주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는 성모님이 서서히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어쩌면 엄마의 뱃속에서 성모님을 통한 엄마의 묵주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 엄마

꽃들이 만발한 계절에 엄마의 팔순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버스를 빌려 가족들과 엄마 레지오 단원들, 지인들과 함께 가까운 지

역으로 꽃구경을 갔다. 엄마의 밝게 웃는 모습들에서 아찔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몇 년 전 엄마는 담관암 진단을 받았다. 우연하게 맹장염 수술을 하다가 발견된 것이었는데 그때는 아무생각이 없었다. 수술하는 날은 묵주를 움켜쥐고 매달리고 있었던 기억밖에 없다. 엄마 레지오 단원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청소년기에 엄마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엄마를 아프게 하지 않았나 자책하면서 눈물범벅으로 기도했었다. 그때 엄마는 같이 기도하자며 손을 잡고 안아주었었다. 엄마는 그랬다.

이제는 엄마의 암 수치가 정상이라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

### 젼마성녀

젼마성녀를 특별히 기억할 때는 축일이었다. 이태리말로 '보석'이라는 뜻을 지닌 성녀의 삶은 인내하는 생활을 통해서 죄악을 극복

할 수 있음을 실천으로 가르치며 살아가신 분이다.

“처음으로 성체를 영한 그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내 생명으로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영성체를 했다는 성녀를 닮고 싶은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렇다. 매일 매일이 반복되는 똑같은 삶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네 이름은 ‘마야’ 라며 묵주에게 이름을 선물했다. 성모마리아와 엄마, 젼마성녀의 삶을 묵주기도를 통하여 닮고 싶은 바람에서다.

오 지 영 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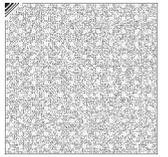
반여성당 • 시인 gemma784@hanmail.net

## 환경과 생명 시장과 문명

중국발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젠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 괴상한 행동이 될 때도 머지않았습니다. 이전까진 상상도 못했던, 흔하디 흔한 물을 돈을 주고 사 먹기 시작한 것도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곧 공기를 사 먹게 되리라는 추측도 결코 허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7년 5월은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곧 그날 이후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1.1%에 다다랐습니다. 4천6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농사와 자연으로부터 차츰 멀어져, 모든 것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먹을거리, 건강, 자연과의 관계, 문명,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까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토머스 베크트 성인의 유해가 모셔졌다고 여겨지는 작은 보석 상자가 국제적인 경매 회사인 소더비를 통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상자는 12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유물이자 국보로 숭상되어, 영국박물관이 상자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캐나다인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영국 정부가 최후의 순간에 조치를 취해 상자가 반출되는 것을 막았지만 시장의 막강한 힘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신앙도, 환경도, 다른 모든 고귀한 것도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이 체제 안에서, 절대 규칙이 되어 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환경처럼 취약한 모든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56항)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 요한(6세)이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잠도 깨지 않은 채 한 손에 카네이션을 들고 '아빠 힘내세요' 라는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아빠를 위하는 요한의 행동에 눈물이 났고 지난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요한이를 낳았습니다. 외동으로 성장한 저는 이 세상에 또 한 명의 내 편이 생겨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요한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구상적혈구성 빈혈'과 '선청성 혈소판 기능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래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낮은 요한이는 가벼운 감기를 앓거나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아 수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만 했

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100~200만 원의 병원비는 월급쟁이의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계속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처분하여 빚 일부를 갚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희망인 요한이의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출근 전에는 편의점,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대리 기사를 하며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고 아직 잠을 깨지 않는 요한이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

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아픈데 아내마저 암이라니... 저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도 잠시, 주님께서 아내와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제 곁에 머물게 해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기쁜 맘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요한이가 있잖아요. 여보 힘내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어요.'

■ 사회사목국(051-516-0815)

###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1) 공 모양의 적혈구로 인하여 일어나는 혈액 장애. 용혈성 빈혈이 특징이며, 보통 염색체 우성 소질로 유전된다.  
2)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혈액요소인 혈소판의 결함으로 출혈장애를 일으키게 됨. 혈소판의 생산이 감소되거나 정상적인 혈소판이 생산 되더라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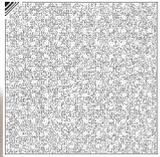
**아이에게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해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주곤 하였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점점 빠져드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의 자극은 '즉각적'입니다. 원하는 것을 바로 찾고, 바로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폰의 매력입니다. 여기에 적응된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는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얻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술만이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아이에게 내주었던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쉽게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내주었던 것이라면, 이러한 양육태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아이의 짜증을 들어주고, 달래주고, 함께 놀아줘야 하는 어른(부모)의 역할은

손쉽게 건너뛰면서, 아이에게만 참고 견디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선한 포도밭 주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우리 눈에는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 같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구원은 품삯으로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하느님과 함께 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잘 교육한다는 것 역시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결과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나눈 시간과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홍성민 신부(부산기독교대학) parvus@hanmail.net

성모성월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사진을 보내주신 본당 홍보분과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포

남창

다대



수정



가야



주례



서대진



가제동



모라성요한



성지



용호



육동



혁명



개금



만덕



물운대



양정



교리



동래



반여



무거



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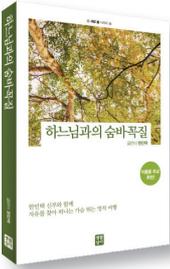
괴정



6월의  
도서

## 하느님과 숨바꼭질

한민택 지음 | 생활성서사 | 15,000원



이 책의 저자 한민택 신부는 신앙은 짐이 아닌 행복이고 기쁨이며, 우리에게 오로지 '자유로울 의무' 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생의 새로운 봄을 열도록 신앙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예수님께 할 얘기가 있어요

이현주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3,000원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의 부인 이현주 씨가 펴낸 신앙 에세이. 가족이 해체되려는 위기의 순간 하느님을 만나 신앙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느님을 향한 저자의 순수함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벌거벗은 지금

리처드 로오 지음 | 이현주 옮김 | 바오로딸 | 12,000원



우리는 편중된 이원론적 사고 논리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로오 신부는 생각과 개념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사는 비결 등을 알려줍니다.

###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부산)**  
· 6.1(금) 13:30(묵주기도), 14:0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6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지역] 6.17(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사전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시설) 부산가정성당 직원 채용**  
1. 분야: 사무직 1명 (신입/경력)  
조건: 나이, 학력, 전공 무관 (엑셀 가능자, 졸업예정자 가능) / 이력서 제출: 6.6(수)까지  
2. 분야: 시설관리직 1명 (신입/경력)  
조건: 나이, 학력, 전공 무관 / 이력서 제출: 6.6(수)까지  
'사무처 앞'으로 우편접수 / 문의: 629-8775(이력서 심사 후 추가서류 및 면접일 개별통보)

### 본 당

**화명성당 향심기도 기초 및 심화과정**  
· 6.14(목), 21(목), 28(목), 7.5(목) 11:00~16:30  
· 화명성당 / 대상: 모든 신자(나이 관계없음)  
참가비: 1회 1만원(점심 제공) / 문의: 341-7770

**좌동성당 사무직원(남) 구합**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교적사본, 1종운전면허증사본, 컴퓨터(한글, 엑셀) 능숙자 / 문의: 747-8370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7. 6. 1. 정명조(아우구스티노) 주교님

###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5.28(일) 19:30 · 아음성당  
주제: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김준우 변호사)  
문의: 465-9508 / 무료강의와 미사

**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제408차(자매): 5.31(목)~6.2(일) / 마감: 5.27(일)  
문의: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꾸르실로 교구 도입 50주년 기념행사**  
"가거러!" (루카 10,3)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 6.6(수) 08:00 · 남천성당  
대상: 꾸르실리스파 / 문의: (055)388-5734  
본당간사 또는 꾸르실로사무국

**바오로아파트 후원회 미사**  
· 5.28(일) 10:30 · 바오로아파트  
문의: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5.28(일)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주보 게재 기간 2018년 7, 8, 9월(3개월)
- ▶ 신청 6.1(금)부터 선착순
- ▶ 접수 이메일 혹은 팩스(629-8756)
- ▶ 금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 문의 629-8752 ▶ 이메일 jubo@catb.kr
- ▶ 신청서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주보'에서 다운로드(www.catholicbusan.or.kr)

**해양사목 제28회 해양·수산인의 날**  
· 6.2(토) 15:00~19:00 · 가톨릭센터 소극장  
미사 17:00 이균태 신부 주례  
문의: 464-2707(해양사목)

**부산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5.29(화) 19:30 · 문현성당 / 주례: 임석수 신부  
연주: 안젤리카그레고리오합창단  
문의: 010-8545-6504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 5.29(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임석수 신부 / 지휘: 최금하  
남, 여 단원 모집 / 문의: 010-3077-3217(단장)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5.30(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 단원 입단 문의: 010-7339-8545

**부산선택주말 제87차**  
· 6.22(금)~24(일) · 은혜의집 / 참가비: 12만원  
대상: 40세 이하의 청년, 비신자 환영  
접수마감: 6.20(수) / 문의: 010-5518-0831, cafe.daum.net/pusanchoice

**혼인미사 예약 접수 안내**

2018. 9. 2(일) 09시부터 접수 시작  
토, 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기타사항은 부산가정성당의 개관 후 안내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목주방 전문 굿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솔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등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나가사키 성지순례**

6/25~28(3박 4일) 35명 모집  
010-8511-2442, 253-5887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 (프란치스코)

CAS 전자저울, 로드셀, 계측기 AND

**정원엠테크**

전자저울, 로드셀, 토크셀, 인더케이터, 계량시스템  
계측기, 중앙선별기 전문, 무상S/S지원, 교정검사

324-4800  
www.castotal.co.kr  
김영균(이내시) 김은숙(요안나)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업,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하지정맥증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박우일 (요셉), 박동욱(안드레아)

754-9975~6

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타워 1층

**가인방문요양센터**

국비지원(85%~100%)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병덕(사도요한), 윤승선(보나)

010-7448-7858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 88, 100, 110, 등  
MK80-마스타30M 짐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짐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짐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합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

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 ·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주 만 구(스테파노)

639-1008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첫금, 토 신심미사)
- 6.1(금) 22:30~다음날 04:00
- 젊은이 성령기도회
- 5.28(월) 19:30 전포성당
- 5.30(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성월 수요일일피정
- 5.30(수) 11:00~16:00
- 강사: 한정옥 자매(서울대교구)
- 수요치유기도회: 6.6(수) 휴회
- 후원회 월미사 (미사, 양형성체, 도유안수)
- 5.28(월) 11:00 / 점심 제공 [후원회원을 위한 기도회] 신설
- 27기 성령목상회 심화과정 1단계 4차 (은사성장세미나)
- 6.8(금) 19:00~10(일) 17:00
- 회비: 10만원 (교재비 8천원 별도)
-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침
- 443차 성령목상회 (성체 신심 세미나)
- 6.15(금) 19:30~17(일) 17:30
- 회비: 10만원(교재비 8천원 별도)
-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침

**성서교육원 특강**

- 낮반: 6.4(월) 10:00~15:30(미사있음)
- 회비: 1만 5천원(식사 제공)
- 직장인반: 6.16(토) 15:00~18:00 / 회비: 1만원
- 주제: 바오로께 서간과 다른 그리스도교 신앙의 또 다른 한 축, 가톨릭 서간
- 강사: 김정완 신부(성서사도직지도신부)
- 성서교육원 2층 / 대상: 성서가족 및 일반신자
- 문의: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창단 25주년 감사미사**

- 5.31(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 문의: 010-4033-9443, 517-8241~2

**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성음악미사**

- 6.4(월) 11:00 (매일 첫째주 월요일)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 문의: 010-4033-9443, 517-8241~2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금철야 첫토요신심미사**

- 철야: 6.1(금) 21:30 푸른군대 경당
-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대교구)
- 신심: 6.2(토) 09:30 기도, 11:00 미사 - 생명 수호 (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
- 문의: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6.5(화) 13:00 연합썰기도, 14:00 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문의: 010-2428-5785

**부산가톨릭대학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교육: 6.4(월)~7(목) 18:00~22:00 (공휴일 제외 3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502호
- 대상: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20명(선착순)
- 교육비: 전액 무료 / 신청: 홈페이지(www.cup.ac.kr) 공지사항-행사모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yotbu@cup.ac.kr 제출 (마감: 6.1(금) 17:00)
- 문의: 510-0948, 010-7406-2011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5.29(화) 14:00 · 서면성당
-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교해성사
- 주례: 구속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6.1(금) 11:00 · 남천성당
- 문의: 582-1774, 010-9081-1743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6.21(목)~29(금) · 발틱순례
- 7.12(목)~24(화) · 서유럽순례
-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6.3(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6.3(일) 14:00	부산 본원	010-6271-4110
성마리아재속회	6.3(일) 14:00	전화상담 후	010-6462-0385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역민을 위한 중독예방 무료교육 수강생 모집

- ▶ 접수: 5.28(월) 까지, 전화접수만 가능
- ▶ 개강: 5.29(월) 19:00 (교육일정표 홈페이지 참조)
- ▶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 401호
- ▶ 문의: 510-0951~3, edu.cup.ac.kr

본 과정 수료생에 한하여 2019학년도 평생교육원 전과정 수강료 20% 감면혜택

**가톨릭선학** 복음 문화 나눔 행복만 세상

**다시, 6.15의 길을 묻다展**

일시: 6/14(목)~27(수) 월요일 휴관 장소: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내용: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 기념 사진 30여점 전시

주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후원: 가톨릭센터, 6.15 부산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원일일 대피정**

일시/ 5월 28일(월) 08:30-17:3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대성당

주제: 묵상기도의 놀라운 힘

강사: 이형수 신부(마산교구 몬시뇰)

파견미사: 울산대리구장 권치호 신부, 강사 신부, 지도신부단 공동집전

대상: 전신자 / 문의: 466-2290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b>오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b></p> <p>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p> <p><b>취업연계, 우수후원강사진</b></p> <p><b>818-1004, 245-1004</b></p> <p>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p> <p><b>성모치과</b></p> <p>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p> <p><b>633-8228, 634-8228</b></p> <p>지하철 1호선 법일동역 1번 출구 50m</p>	<p><b>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b></p> <p>교우특별할인</p> <p>방(아브라함) 송(아가다)</p> <p><b>555-5777</b></p> <p>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김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p> <p><b>김용기내과의원</b></p> <p>[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p> <p>원장 김 용 기(T. 아퀴나스)</p> <p>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p> <p><b>상담 및 예약 245-7100</b></p>	<p><b>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b></p> <p>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7명: 박인호(우카), 한경문, 최명락, 유권희, 남화성, 김윤지, 서수홍(과파엘)</p> <p>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박재영, 윤지영</p> <p>산부인과 겸임: 박정미</p> <p>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p> <p><b>208-5566</b></p>
<p><b>(주)온누리투어</b></p> <p>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p> <p><b>매주 1회 부산 출발</b></p> <p>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 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 캄보디아 프놈펜(안코르와트 일정 포함)</p> <p><b>853-1333, 010-4843-4020</b></p>	<p>동래 <b>참사랑요양병원</b></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p> <p>동래: 553-0050 추홍수(야교보)</p> <p>광안: 751-1515 김명희(야네스)</p>	<p><b>미래고속관광</b></p> <p>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p> <p>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p> <p>안전하고 쾌적한 여행</p> <p>대표. 우 종 한(리차드)</p> <p><b>055-333-6300, 010-3720-0303</b></p>	<p>(주)부산 리무진 장의사</p> <p>각 본당의 연도회장님께 연락하시면 부산교구장과의 계약된 내용대로 할인 금액(약 3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김성수(미카엘)</p> <p><b>418-4444</b></p>	<p><b>참병원</b></p> <p>암환자중점케어, 호스피스 치료 의학박사. 정 중 수(미카엘)</p> <p><b>714-0890</b></p> <p>개금사거리 지하철 2번 출구 바로 앞</p>